

100년의 봄, 스타들이 핀다

김유정, KBS '그날이 오면' 내레이션
김연아·김향기, MBC '기억 록' 참여
소이현은 라디오서 유관순 연기 열연

스타들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재능으로 힘을 보탠다.

연기자 김유정은 28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KBS 2TV 3·1운동 100주년 전야제 '100년의 봄' 진행자로 나선다. 2016년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 함께 출연한 진영과 호흡을 맞춰 조수미, 다이아믹듀오, 홍진영, 위키미키 등 가수들이 펼칠 화려한 무대를 소개한다. 그는 "뜻 깊은 무대인만큼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떨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3월1일과 2일 방송하는 KBS 1TV 다큐드라마 2부작 '그날이 오면'의 내레이션도 맡았다. 바쁜 일정에도 당시의 박찬 감독을 직접 전하고 싶다는 의지로 참여했다.

MBC가 1월1일부터 방송하고 있는 100부작 3분 다큐멘터리 '1919-2019, 기억록'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00명의 스타가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순재, 성동일, 손현주, 신하균 등과 이준익 감독, 피겨스케이팅 스타 김연아 등이 독립운동가 김원봉, 안중근, 윤동주, 손병희 등 100인의 발자취를 짚고 있다. 한국사 강사 설민석은 25일 방송한 tvN '늑세시대-문제적 남자'에 출연해 그동안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라디오 DJ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MBC 라디오 DJ로 활동 중인 정경미, 정선희, 양희은은 3월6일부터 3일간 표준FM을 통해 방송하는 3부작 라디오 다큐 드라마 '넌 찾아 가는 길'에서 각각 안경신, 오광심, 정정화 역을 맡아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삶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전한다. SBS 러브FM '집으로 가는 길'을 진행하고 있는 소이현은 드라마 '3월의 소녀'의 유관순을 연기하며 그의 일생을 따라간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소이현



김연아



정선희

양희은

다큐로, 콘서트로...TV로 보는 '대한독립만세'

지상파 3사를 비롯한 각 방송사가 3·1절을 맞아 다큐 드라마부터 콘서트까지 다양한 형식의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9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KBS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주최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제 '100년의 봄'을 2TV를 통해 생중계한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100년의 봄'은 가수 알리, 민우혁, 지코, 다이아믹듀오 등의 특별 무대로 꾸며진다. 송소희, 유태평양 등 젊은 명창들이 꾸미는 '100년의 아리랑' 코너도 기대를 모은다.

3·1절 당일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조직한 신한청년당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신한청년당의 젊은 그들'을 1TV로 방영한다. 3·1운동 100주년 특집 공모 당선작인 2부작 다큐드라마 '그날이 오면'도 1일과 2일 잇달아 전파를 탄다. '그날이 오면'은 독립선언서가 인쇄되고 배포되는 과정을 그린다.

MBC는 대한제국 무관학교 최후의 무관생도 45명의 이야기를 드라마 형식

로 그린 2부작 다큐멘터리 '마지막 무관생도들'을 편성했다. 항일 무장투쟁과 친일 부역이란 갈림길에 선 무관생도들의 엇갈린 삶을 화가 임옥상의 강렬한 퍼포먼스, 빔 프로젝터, 연극 기법 등을 활용해 전한다. 이미 올해 1월1일부터 시작한 100부작 미니 다큐멘터리 '1919-2019, 기억·록'도 이어진다.

SBS는 신년특집으로 방영한 다큐멘터리 '의열단의 독립전쟁'을 3월1일 다시 내보낸다. 같은 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조명한 한중합작 다큐멘터리 영화 '22'를 방영한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과 연기자 박세준이 중국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항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 '임정루트를 가다'도 '모닝와이드'를 통해 3월22일까지 7회에 걸쳐 공개된다.

EBS는 일제가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자행한 경기 화성 제암·고주리 학살 사건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제암리 100년의 기억'과 시인 윤동주를 그린 영화 '동주'를 3월1일 편성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 방송사가 다양한 장르의 특집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사진제공 | KBS·SBS·MBC

#해시태그 킷



피오의 가족상봉?

아이돌 그룹 블라비 피오(가운데)의 '가족상봉' (?)이 이루어졌다. 피오는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엄마와 형으로 출연했던 연기자 백지원, 박보검과 만났다. 세 사람은 피오가 현재 출연 중인 연극 '소년, 천국에 가다' 공연장에서 재회했다. 피오는 두 사람과 팔짱을 낀 사진을 공개하며 "든든한 지원군. 엄마랑 큰형이 와서 신났다"고 남겼다. 팬들은 "선배배우정이 훈훈하다" "가족사진 같다" 등 부드러운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피오 #박보검 #백지원 #엄마와형

'남편 성접대 연루' 박한별 2년만에 드라마 복귀 무산?



박한별

연기자 박한별(34)이 MBC 주말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지만 남편 유 모 씨(34)가 박병승리(이승현·29)의 투자자 성 접대 시도에 의혹이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대한 박한별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지만 그는 드라마 촬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뜻만을 27일 재차 밝혔다.

박한별의 남편 유 씨는 26일 한 매체가 승리의 성 접대 의혹 증거라며 공개한 스마트폰 메시지 대화에 등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메시지는 승리와 유 씨가 "여자들이 부러" "등 투자자들을 위한 성 접대를 준비하는 듯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유 씨는 최근 마약 유통 논란에 휩싸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대표이다. 승리는 2016년 유 씨와 유리홀딩스를 설립해 공동대표로 일하다, 3월 입대를 앞두고 '군인의 겸직금지' 관련 법규정을 지키기 위해 1월 말 사임했다.

두 사람이 동업자 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22일, 박한별의 소속사 플라이엔터테인먼트는 "유 씨가 승리와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했던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도 "더 이상 추가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며 "박한별은 현재 주어진 스케줄을 소화 중"이라고 밝혔다.

의명을 요구한 '슬플 때 사랑한다'의 한 관계자는 27일 "연기자 본인이 엮인 문제가 아니기에 누구도 선불리 이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MBC 관계자는 "(박한별과 관련된) 별다른 입장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편집 | 심승수·김형조 기자

현실배우로 거듭난 '엄마' 이나영

영화 '뷰티풀 데이즈'서 탈북여성 역할
드라마 '로맨스...'선경단녀로 공감대

이나영이 삶을 이야기하는 '현실 밀착형' 배우로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활동을 멈췄다 돌아온 그가 더욱 더 깊어진 모습으로 대중의 마음을 파고든다. 출연작을 선택하는 선구안과 캐릭터에 접근하는 깊이까지, 공백을 딛고 복귀하는 배우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활약이다.

이나영은 9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인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을 통해 주말 밤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5년 만에 영화 '뷰티풀 데이즈'로 스크린에 복귀했다.

오랜 공백에 따른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영화와 드라마에 연이어 참여한 이나영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변할 만한 캐릭터와 현실적인 이야기로 공감을 끌어낸다. 상당한 시간 연기 활동을 멈췄다 돌아오는 연기자들이 그 간극을 단번에 줄이기 위해 화려하면서도 자극적인 작품을 주로 택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이나영의 지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는 강단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을 통해 가정을 책임지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 직업인으로서 여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아픔을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으로 분류되는 캐릭터이다. 현실에선 너무 흔한 탓인지 드라마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적 없는 이야기

이나영을 통해 완성되고 있다. 덕분에 비슷한 처지 여성들의 삶을 새삼 돌아보게 한다.

이나영 역시 2015년 결혼 뒤 '경력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나영과 강단을 따로 떼어 바라보지 않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낸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주말 밤 9시대 방송하면서도 5~6%의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시청자의 이 같은 반응을 증명한다.

영화 '뷰티풀 데이즈'에서도 이나영은 남달랐다. 탈북여성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20년의 과정을 담은 영화에서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지킨 여성이자 엄마의 삶을 그렸다. 이를 통해 한층 깊어진 연기로 진가를 다시 증명했다.

이나영은 연기 경력에 비해 출연편수가 적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을 만나면 고된 없이 몰두하는 편"이라고 했다. 드라마 방송 전 인터뷰에서도 "엄마와 여성의



이나영

삶을 다루는 소재나 주제가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다"며 "지금의 나와도 잘 맞아 떨어져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